

감은사 금동사리함 '세상속으로'

문화재, 3년 7개월만에 원형복원

국내 최소형 5mm풍탁 재현

신라 시대의 과학 기술과 불교 예술이 응축된 금동사리함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다. 불교조각사와 공예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정)는 96년 4월 경주 감은사지 동쪽 석탑(국보 제112호)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을 3년 7개월 만에 복원, 공개했다. 탑을 해체하던 중 탑신 윗면 사리공(舍利孔)에서 발견된 이 사리함은 심하게 파손된 채 흙과 부식층으로 두껍게 덮여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파손돼 분리된 금동사리함의 사천왕상들을 한 면씩 접합하고 뚜껑 부분의 파손된 편들도 접합했다. 또 각 부재들의 위치를 파악한 후 접합했

는데, 접합면을 정확히 찾을 수 없는 곳은 그냥 두었다.

이렇게 복원된 금동사리함은 바깥을 감싼 금동제사리외함(金銅製舍利外函, 이하 '외함')과 안쪽의 금동제전각형사리기(金銅製轉形舍利器, 이하 '사리기')로 밝혀졌다.

외함의 네 결면에는 허리가 가늘고 몸을 비튼 등 생동감과 유연성을 강조한 사천왕상이 양각되어 있다. 전각형(殿閣形)의 사리기는 사각연화대좌 위에 연꽃이 조각된 보주형 탑신을 안치하고 있으며, 나한상과 사자상을 비롯한 여러 부재를 장식했다.

이들 유물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

은 사리기 장식물인 금제풍탁(金製風鐺), 풍탁이란 바람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는 일종의 풍경. 금동사리함에서는 이런 풍탁 5개가 수습됐다.

그런데 이들 풍탁은 길이가 겨우 5~7mm, 무게는 0.04g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현미경을 들이대야 관찰할 수 있는 이런 풍탁을 도대체 신라인들은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이명희(연구소 보존과학실장) 씨는 "신라인은 이미 1천300년전 현대의 반도체 기술에 버금가는 과학수준에 도달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외함의 도금막은 두께가 17nm로 균일한 것으로 나타나 신라의 도금기술이 대단히 뛰어났음을 알아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미술사적 조사와 정밀 실측 조사, 제작기법 등을 조사한 후 보존처리 내용을 덧붙여 12월 말경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감은사지 동상층석탑(국보 제112호)에서 발견된 국내 최소형 풍탁. X-레이 투시촬영으로 파편을 수습하는 등 보다 발전한 국립문화재 연구소의 보존과학 기술이 이루어낸 쾌거로 평가된다.

경주 남산 통일신라 절터 3곳 발견

불교유산 465곳 산재 세계문화유산 지정 '청신호'

신라의 영산인 경주 남산(사적 311호)을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최근 9개월 동안 남산 보존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적 조사 결과, 국사골·대골·대마골 등 3곳에서 통일신라시대 절터를 추가로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대골 절터는 축대·석탑부재·건물기단석이 매몰된 채 발견돼 발굴조사가 계속되면 중요한 단서가 잡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장계곡 입구 절터에서는 석탑 1기를 확인했고, 석불 1기도 새로 발견했다. 2000년 5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 실사를 받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세계유산' 지정 가능성에 다가선 좋은 징조들이다.

수리봉을 중심으로 내리쬐는 44개 계곡을 감싸안은 남산, 절터 127곳, 석불 87구, 석탑 71기 등 모두 465곳에 달하는 신라 불교유산이 산재해

세계 '최대의 불국토'로 꼽히는 곳이다. 이번 발굴은 연구소 직원은 물론 향토사학자 등 20여명이 함께 참가해 100여차례에 걸쳐 산을 오르내린 결과이다. 특히 '남산사랑 시인묘임'

(김구석 회장), 송재중(신라종 교사), 이근직(경주대 교수), 최인희(계림고 교사)씨 등 민간전문가들은 참여의 수준을 넘어 그간 쌓아온 조사자료를 선뜻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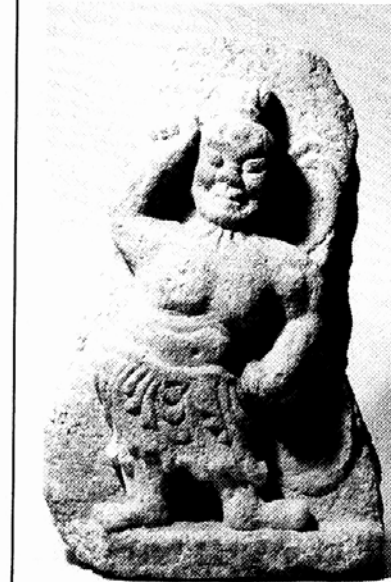
이들 활동에 대해 이은석 학예연구사는 "경주인들의 남산사랑이 아니었다면 현장조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연구소측은 또 남산 유적·유물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석불 87구의 보존상태를 확인하고 머리부분이 없었던 용장골 석불좌상(보물 제187호), 약수골 석불좌상 등 석불 7구도 정밀실측하고 있다. 석탑 부재가 무너진 석탑 7기는 복원작업에 돌입했고, 용장골 모전석탑·국사골 1차 석탑은 복원을 끝낼 경우 보물지정이 가능할 만큼 상태가 양호하다.

연구소측은 내년 5월까지 '남산 보존·정비 종합보고서' '남산유적도록'을 발간해 구체적인 보존사업의 연도별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성철스님사리탑 '환경문화상' 수상

성철스님 사리탑 '산의 공간'이 한국경제신문 주최 제10회 대한민국환경문화상을 수상했다. 환경친화적 구조를 보이면서도,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수상 이유. 시상식은 20일 오후 2시 30분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



통일신라시대의 '석조인왕상' 호 임미술관 소장.



신라시대의 '인면문 수막새'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불상서 찾은 한국인의 자화상

호암미술관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전'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불상·초상화등 전시

호암미술관이 10일부터 2000년 2월 27일까지 80일간 '새 천년 특별기획-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전시를 연다. BC 5,000년께 제작된 인면장식 조각으로부터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고대·현대 미술작품 201점에 녹아 있는 한국인의 자화상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신라인의 미소'로 알려진 흥륜사지의 '인면문 수막새'와 본격적인 인물상의 시작이랄 수 있는 불상 28점이 전시돼 주목된다.

불상 가운데 신라시대의 금동관음보살입상(보물 제780호), 고구려시대의 금동보살반가상(국보 제108호), 통일신라시대의 금동관음보살입상(보물 제927호)과 금동여래입상(보물 제779호) 등은, 부처님의 상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표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

이외에도 이번 기획전은 조각 뿐만 아니라 전남 해남의 녹우당 소장 '미인도'가 처음으로 공개되며 김홍도의 '평생도봉', 우리 나라 최초로 서양화를 도입한 고희종의 '자화상', 한국의 전통과 소재를 즐겨 그린 박생광의 '무녀' 등 회화도 소개한다.

상상문화재단 김영희씨는 "인물은 미술사의 주요 소재로, 민족과 시대의 보편적인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한국적 미의 세계를 가장 뚜렷이 나타낸 작품들을 엄선했다"고 설명한다. 조각과 회화를 망라한 이번 기획전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출품작들은 호암미술관 소장품을 비롯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학교박물관, 호림미술관, 해강도자박물관 및 개인 소장품을 두루 모은 것이다.

이번 기획전의 조각 작품은 서울 순화동 호암갤러리(02-771-2381), 회화 작품은 태평로 로망갤러리(02-2259-7781)에서 각각 전시되며, 티켓 1장으로 양쪽 전시를 모두 관람할 수 있다.

Internet Mall

부다피아

보리수

www.buddhaworld.co.kr

www.buddhapia.com

www.boriso.com

'물 부다피아' '부다월드' '보리수' 등 불교쇼핑몰 '클릭' 하면

염주·향 등 싸게 사요

염주나 향과 같은 불교용품은 선물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구입해야 할까? 이 같은 고민을 하는 불자 네티즌이라면 인터넷으로 직행하는 것이 당연할 듯.

불교용품 사이트를 '클릭' 한 것만으로, 대리품을 팔지 않아도 여러 유통업체의 물건을 한 눈에 비교하고 구입할 수 있다.

국내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로는 부다월드, 보리수, 물부다피아 등이 있으며, 국외 사이트로는 트라이세울, 삼발라선 등이 있다. 이들 사이트들은 깔끔한 화면으로 불자 네티즌의 시선을 잡는가 하면, 실제 크기의 영상까지 갖추고 있어, 물건을 고르는 맛도 느낄 수 있게 한다. 물론 가격도 저렴하다.

보리수는 미술용품, 펜시, 장신구, 음반 등이 잘 정리되어 청소년 불자 네티즌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다. 그런 만큼 신세대 불자들을 위해 계산관을 마련하는 등의 세심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부다월드도 불상, 등, 초등사에서 필요로 하는 불구를 주력상품으로 삼고 있다. 상품을 실제 크기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이트의 자랑이다. 물 부다피아는 두 사이트를 아우르는 사이버 불교백화점, 범문 테이프에서부터 불교공예품, 펜시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불자네티즌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불교용품 쇼핑 공간을 제공하는 국외 사이트인 트라이세울과 삼발라선에서는, T셔츠 등 불교 상징이 그려진 옷을 구매할 수 있으며, 금강저와 같은 티벳불교용품도 살 수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가장 공간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리수 www.boriso.com
부다월드 www.buddhaworld.co.kr
물 부다피아 mall.buddhapia.com.kr
트라이세울 www.triseul.com
삼발라선 www.shambhulan.com

행사기간: 19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본 행사는 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티벳 死者의 춤(Bardo)'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 ▶ CD(3장): 정가 50,000원 → 30,000원
- ▶ TAPE(90분 테이프 2개): 정가 28,000원 → 18,000원



바르도에 대한 오소의 강의 테이프(5,000원)와 함께 오소리 디스크를 드립니다.

바르도는 죽음에서 탄생까지의 중간 상태를 말하며, '중음기(中陰期)', 혹은 '아스트랄(Astral)'이라고도 한다. 이 바르도 명상은 바르도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둘러 줄으로써 바르도의 과정에서 깨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명상법이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를 기초로 하여, 오소의 명상에 대한 원시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소 삼과 죽음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etman)에 의해 만들어졌다.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다.

배경 음악: 친마야(Chimaya)/번역: 최형식/목소리: 정두석

2000년 맞이 축하 행사

도서출판 황금꽃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E-mail : oshok@chollian.net

1. 2,000명에게 오소 타임즈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선착순 2,000명에게 격려간으로 발송되고 있는 '오소 타임즈 한국어판' 2호에서 7호 중에서 1권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시요!

▶ 1호 - 제3의 눈(정만/2호 - 전생(前生)/3호 - 최면/4호 - 요법과 명상/5호 - 관계, 유명한 20가지 요법/6호 - 아틀란티스의 비밀 뉴 에이지와 명상/7호 - 티베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 삶은 변화이다. 유명한 사람들의 별자리

2. 2,000원을 돌려 드립니다

2,000원을 맞아, 전화나 팩스, E-mail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2만 원 단위로 2,000원을 돌려 드립니다 (예: 20,000원 구입시 2,000원, 40,000원 구입시 4,000원...)

▶ 대상: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제작된 전 품목바르도와 다이어리는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품 목록이 들어 있는 '황금꽃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3. 2000년, 인도 '오소 명상 휴양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판매되는 책이나 테이프들을 전화나 팩스, E-mail로, 1회 주문시 3만 원 이상 구입하는 분들 중 매년 4명을 추천하여 인도 푸나에 있는 '오소 명상 휴양지'로 초대합니다. 추천은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16일)에 걸쳐 실시됩니다.

▶ 1차 추천일: 2000년 1월 17일(일), 오후 1시

4. '새로운 2000년'을 예약하십시오

2,000년도 오소 다이어리와 캘린더, 아름다운 오소의 사진들이 실려 있는 '인도관 오소 타임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약 마감: 1999년 12월 15일
▶ 판매가: 4만 원

5. 축제를 위한 축제 밀레니엄 송년 파티

천 년의 마지막 토요일 밤을 함께 보낼 독자분들을 초대합니다. 음악과 노래 그리고 춤이 있습니다.

▶ 날짜: 1999년 12월 25일(목) / 오후 6시 - 10시
▶ 회비: 2만 원
▶ 미리 예약하십시오

황금꽃의 책과 테이프들

거울의 반대 있다	12,000	연애의 오소리 (90분)	6,000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단계	12,500	심묵의 불꽃 ()	-
누구도 죽지 않는다	12,000	명상법(명상을 직접 하는 데 사용되는 배경음악)	-
제3의 눈을 찾아서	12,000	다이나믹(동적) 명상	13,000
무심(無心), 그 영원의 꽃을	9,000	문달라니(공의 말함) 명상	-
오소 (無) 타로(Tarot)	37,000	나디라(라)의 명상	-
비의(無)의 심리학	8,000	나디라(라)의 명상	-
명상 음악(음)이름을 아시지 못하는 편안한 음악)	-	바르도 오디오 북(180분)	50,000
사랑하는 이의 정원	13,000	다이나믹/문달라니 명상	6,000
바소의 연못	-	구리산(구리산)비비기도 명상	-
C 민명의 붓다들	-	나디라(라)나디라(라) 명상	-
D 자유를 즐기는 붓다	-	만달라(공의)명상(회전) 명상	-
정미꽃 향기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신성무(神性無)	-	차크라 호흡 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원	5,000	알금 차크라를 위한 소리	-
바소의 연못	-	황금꽃의 비밀	-
민명의 붓다들	-	미스틱 로즈(무늬) 명상	-
자유를 즐기는 붓다	-	무심(無心) 명상	-
정미꽃 향기	-	저녁 사트사(Satsang) 1-7번	각 6,000
신성무(神性無)	-	바르도 오디오 북(180분)	28,000
오소 그림지	-	바르도에 대한 오소의 강의	5,000
다섯 손가락	-	비비파나 명상법(강의)	6,000
T 흐르는 강물에게 Yes	-	특별 비디오 시리즈	-
A 이것! 대나무가 전하는 말	-	1 인도 오소로인 인터내셔널	20,000
E 숲길에서 순간	-	2 다이나믹 명상	14,000
웃고 있는 북들	-	3 떠오르는 달	17,000
직관(直觀)	-	4 신성무(神性無) 공의 심화	20,000
새벽을 보다	-	5 신인류에 대한 선언	20,000
열린 창문	-	6 내 꿈을 그대에게 맡기노라	16,000
민명의 붓다	-	7 아침 저녁 명상	20,000
구름 지켜보기	-	강의 비디오 시리즈	-
피안(靜安)	-	오소의 선별된 강의 시리즈	-
사랑은 초대이다	-	1-16번(각 1시간 20분)	각 20,000
빈전의 차, 심무(90분)	6,000	오소 타임즈 1번 구독료	10,000